



쌍용정보통신

2000년 문제해결시스템 대한해운에 공급

쌍용정보통신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2000년(Y2K)문제」 해결 및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 지원을 위해 새로 업그레이드된 「시퀀트 누마-Q 2000」을 대한해운에 공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대한해운에 공급하는 「누마-Q 2000」은 기존 시퀀트사의 운영체제(O/S)를 업그레이드한 「DYNIX /ptx 4.3」을 설치, 「2000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뿐 아니라 오라클사의 ERP 전용 프로그램인 「오라클 파이낸셜」을 탑재, ERP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미래형 시스템이라고 쌍용측은 설명했다.

또 「누마-Q 2000」은 펜티엄 프로 CPU를 2백52개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1백 테라바이트(TB)의 데이터를 32GB/s의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등 메인프레임에 버

금가는 고성능 시스템이면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및 뛰어난 확장성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대한해운은 「2000년 문제」를 해결해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누마시스템의 뛰어난 확장성과 기존 시스템 대비 4~5배의 성능향상을 통해 생산성 증대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쌍용정보통신은 이번 「누마-Q 2000 시스템」 공급을 통해 「2000년 문제해결 시스템시장」을 계속 공략할 계획이며, 데이터웨어하우징(DW), ERP 및 인트라넷 등 복잡 다변하는 기업의 전산환경을 통합지원하는 「데이터센터」 시장선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삼성 SDS

중소기업형 「유니ERP」 발표

삼성SDS는 지난 2월 19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유니ERP의 신

버전(Ver.1.5) 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에 발표한 「유니ERP 1.5」는 신속한 의사결정 및 수출입 업무를 위한 승인, 통관, 선적관리 기능구현으로 은행, 세관과 업무자료를 쉽게 주고 받을 수 있고 발주-구매-영업관리자료를 상호 연동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SDS는 현재 효동전자 등 10여개 국내 중소기업에서 유니ERP를 구축중에 있으며, 지난해 9월 구축에 돌입한 (주)모나미의 경우는 ERP 도입으로 5% 이상 단순 반복작업 축소와 30~50% 이상의 주문 대기시간 단축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솔텔레콤

특화서비스 통해 인터넷사업 강화

한솔텔레콤이 특화된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통해 올해 매출을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70여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2월 19일 밝혔다.

한솔텔레콤 인터넷사업부는 오는 3월부터 기업들에 인트라넷시스템이 가미된 기업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한솔텔레콤의 기업 고객이 단순한 인터넷접속서비스뿐 아니라 영업, 마케팅 등을 인터넷상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 솔루션을 구축해주는 것이다. 인트라넷 솔루션은 한솔그룹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코」를 기반으로 해 한솔텔레콤이 자체 개발했다.

이와 함께 한솔텔레콤은 웹진,

전자우편 시스템을 개발한 국내외 벤처기업과 협력, 이 분야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자사보,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한솔텔레콤은 또 올해 전략사업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솔텔레콤은 이를 위해 국내외의 업체들과 업무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솔텔레콤이 제공하게 될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오는 3월 유료화 하는 법률정보서비스를 포함, 생활영어, 유학정보, 도우미 정보 등이며 상반기 중에 서비스를 거쳐 하반기부터 정식서비스에 들어간다.

두루넷

MS와 "레인보우" 시스템 공동개발 착수

두루넷이 자체 기술인력 20명을 미국 시애틀에 있는 마이크로 소프트(MS)사의 연구소에 파견하는 등 레인보우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공동개발에 착수했다.

지난 2월 19일 두루넷은 MS사에 연구인력을 파견하고 오는 7월 레인보우 상용서비스를 위해 △상용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개발 △각종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및 전용 웹브라우저 개발 △스케이블망 관련 기술 등을 MS와 함께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루넷은 4월부터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오는 7월부

터 최대 10Mbps급 속도로 인터넷 액세스서비스, 콘텐츠 멀티미디어 서비스, 전자메일, 뉴스, 채팅과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MS본사에서 두루넷 이용태 회장, 미국 MS 빌게이츠 회장, 한국전력 이종훈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레인보우서비스를 실시키로 공동 합의했었다.

LG텔레콤

방한 외국인에 PCS 서비스

LG텔레콤은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통신사업에 자사의 개인휴대통신(PCS)단말기를 공급, 이를 휴대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019PCS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LG텔레콤은 우선 일본의 회선재판매업체인 S.G.A.T사에 2월부터 약 3백대의 단말기를 공급, 국내서 이동전화서비스를 희망하는 일본인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현지서 단말기를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LG텔레콤은 홍콩의 홍콩텔레콤 CSL사 및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텔레콤 모바일사에도 자사의 단말기를 제공, 각각 3월과 4월부터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한하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PCS 이용요금은 LG텔레콤의 표준요금이 적용된다.

SK컴퓨터통신

정보시스템 개발 방법론 구축

SK그룹 SI업체인 SK컴퓨터통신(주)은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작업절차, 기법, 산출물 등의 제요소별 정보들을 논리적으로 체계화, 표준화한 것으로서 품질경영의 토대가 되는 개발 방법론 「SK4FRONT」를 구축하였다고 지난달 밝혔다.

고객의 요구가 복잡 다양해지는 등 정보기술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심화되고 프로젝트가 대규모화될수록 방법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인식, 방법론 구축을 서둘러 온 SK컴퓨터통신은 DTTI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방법론인 4FRONT를 기반으로 약 7개월전에 걸친 수정 작업을 통해 「SK4FRONT」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방법론은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정보전략계획 방법론 그리고 정보시스템 개발 방법론 등 3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정보시스템 개발 방법론에서는 Host 중심 뿐만 아니라 Client /Server 환경하에서의 개발 방법도 모두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SK컴퓨터통신은 올 하반기 중 객체지향 방법론을 새롭게 추가시킬 예정이며, 방법론의 정보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 베이스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QA제도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